

문화병원



文化淑
院長

병원연혁

- 1978. 7. 7 구정회정형외과, 문화속산부인과 개원
- 1987. 2.26 문화병원 개원
(대지 300평 연건평 1500평(지하2층, 지상10층)) (내과, 외과, 정형외과 제2과, 산부인과 제4과, 소아과, 마취과)
- 1991. 3. 1 마취과 제2과 소아과 제2과
(체외수정실, 불임연구실 개설)
- 1992. 1.23 체외수정에 의한 아기 출산성공
- 1994. 3. 1 산부인과 제10과 개설, 소아과 제3과 개설
- 1996. 3. 1 산부인과 제11-13과 및 해부병리과 개설
- 1996.11. 6 인턴수련병원 지정
- 1997. 3. 1 산부인과 제14-15과 개설
- 1997. 5. 2 신관 증축허가
(지하3층, 지상11층 연면적 1,700평)



▲ 원무과 창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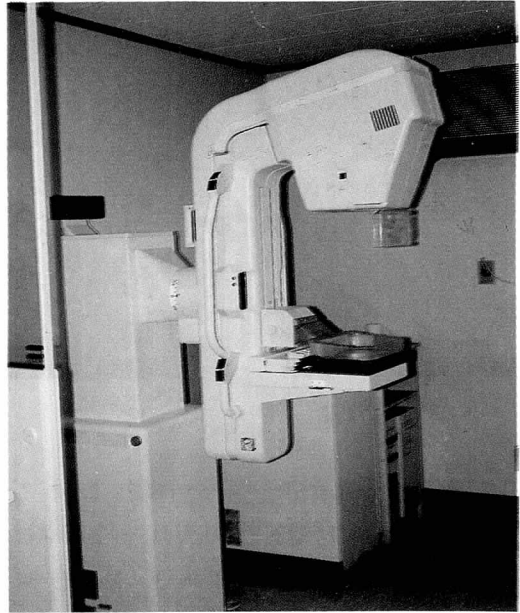
부산제일의 여성전문병원

부산에는 부산제일의 여성전문병원 문화병원이 있다.

文化人으로서 직원들이 갖고 자부심과 긍지는 환자에 대한 최선의 진료, 최고의 진료를 제공하겠다는 병원진절로 나타난다.

환자를 가족처럼 병원을 내집처럼으로 시작하는 문화병원 직원들의 환자맞이 응대인사법은 미소로 시작하는 아침을 즐겁게 한다. 그리고 그것은 누가 강제로 시켜서라기보다는 나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기에 어색함이 없이 매우 자연스럽다.

1978년 7월 7일 구정회정형외과와 문화속산부인과로 부산시 동구 범일동에 개원한지 올해로 꼭 20년 구정회정형외과는 4백병상 규모의 삼선병원과 문화정형외과(1백병상)로, 문화병원은 1백67병상규모의 여성전문병원으로 분리, 독립하여 발전에 발전을



▲ 맘모그래피

계속해왔다.

그리고 앞으로 2년4개월 되면 문화병원은 지상 11층, 지하 2층, 연면적 약 1천7백평의 현 대지위에 최첨단 여성전문병원을 완공시켜 새로운 비상을 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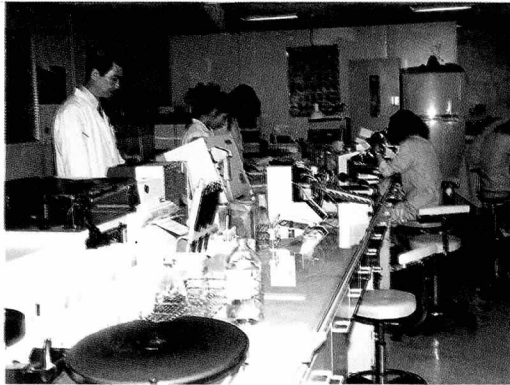
따라서 이 지역의료를 이야기할 때 부산의 문화병원은 빠질 수 없는 지역의 주춧돌이라는 것을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다.

오늘의 문화병원을 탄생시키고 성장시킨 文化淑원장은 『환자제일을 지향하며 환자를 위해 사랑과 헌신으로 돌보는 의료인들만이 모여있는 병원이 저희 문화병원이며 이것이 부산지역의 산부인과 전문병원으로 지역주민들에게 신뢰받는 이유』라고 설명한다.

86년 11월 1일 이름을 문화병원으로 바꾼 다음해 2월 26일 문화병원을 개원하여 부산경남지역의 산부인과, 소아과 전문병원으로 명성을 얻으며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비결을 文化淑원장은 이렇게 말한다.



▲ 외래접수 안내



▲ 임상검사실

文원장은 『소득수준이 높아지고 삶의 질 향상이 강조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 여성들의 건강관리나 모자보건, 건강한 태아를 출산하기 위한 산전관리는 아직까지 크게 미흡한 수준』이라고 설명하고 『문화병원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여성들의 산전 산후관리는 물론 건강한 어린이를 통한 튼튼한 사회를 위해 인술로 봉사하는데 큰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병원문턱이 낮은 병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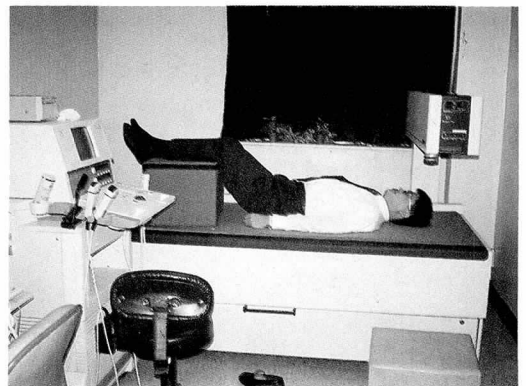
문화병원을 찾은 예비산모나 예쁜아기를 안은 엄마나 할머니들은 역한 소독알콜의 냄새대신에 자애로운 어머니의 손길과도 같은 친절냄새를 맡을 수 있다.

또한 아담하지만 포근한 느낌을 주는 작은 병원으로서 철저히 개인의 사적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모든 진료실에 환자의 편의와 비밀을 보장토록 노력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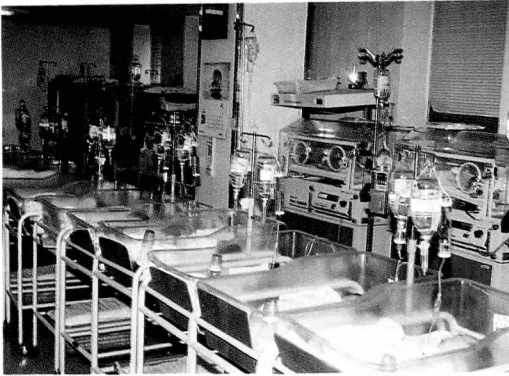
문화병원 친절위원회에서는 △복도에서 내원객과 마주칠 때 직원은 한쪽으로 비켜서는 문화병원 직원들의 마음, △퇴원시 무거운 짐을 든 내원객과 마주칠 땐 가까운

장소만이라도 들어주려는 마음, △안내를 받고자 하는 내원객에게 최대한의 예의를 표하고 내원객과 이야기 도중 시선을 마주침으로서 주의를 집중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것, △피치 못할 이유로 내원객을 잠시 기다리게 할 때 미리 양해를 구할 것, △정확히 고객이 원하는 것을 제시해주지 못할 때는 다른 선택사항이나 대안을 제시하는 것, △타 부서 직원의 방문시 가벼운 목례 등으로 반가움을 표하고 직원간이라 할지라도 기분이 상하지 않도록 항상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 등을 지켜야 할 기본수칙으로 정하는 것도 바로 병원문턱을 낮추어 늘 환자결에 있는 인상을 심기 위함이다.

지역병원(Community Hospital)의 가장 큰 역할을 묻는 질문에 文化淑원장은 『환자들이 쉽게 병원을 찾을 수 있도록 병원문턱을 낮추고 환자를 성심성의껏 진료하여 치료를 잘하는 병원, 빠르고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을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중소병원들도 진료와 함께 늘 연구하는 자세가 필요하며 실력있는 병원, 친절한 병원, 유명한 병원이 지역에 있다는 것을 주민 스스로 자랑으로



▲ 골밀도 측정기



▲ 신생아실

여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력있는 여성최고의 병원

부산 문화병원 文化淑불임클리닉팀은 최근 미국의 권위있는 산부인과 저널지인 「American Journal of Obstetrics and Gynecology」에 유산후 자궁내 잔류태아 골조직에 의한 2차 불임증에 관한 논문을 실어 습관성 유산이나 인공유산으로 인한 불임의 원인을 규명, 국내외적으로 그 실력을 인정

을 받기도 했다.

병원에서 환자감동, 직원감동의 원동력은 무엇보다도 환자를 잘돌보고 치료하는데 있다는 文化淑병원장의 병원경영철학을 엿볼 수 있는 면이기도 하다.

또한 늘 환자감동을 위해서는 문화병원에 근무하는 모든 직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야한다는 뜻에서 문화병원 직원들은 다른 부서의 직원에도 관심과 도움을 주며 편안하고 쉬운 일만 자기자신이 하려하지 않는지 늘 체크질하는 자세로 근무에 임하고 있어 오늘의 문화병원이 발전할 수 있는 큰 힘이 되고 있다. 미래 문화병원의 주인공은 바로 문화병원을 찾는 환자요 직원들 자신인 것이다.

직원장은 『환자를 위한 쾌적한 진료환경을 위해 병원을 좀 더 확장하고 여성질환과 태아건강을 위한 칼라초음파기기 등 최첨단 의료장비를 구입, 누구나 안심하고 찾아올 수 있는 병원을 만드는 것이 꿈』이라고 말하여 『의료인은 인술을 통한 사회봉사와 헌신이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소명이라고 생각한다』며 의료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 불임클리닉팀의 미세수술